

정근식 '대통합' 제안에도... 진보진영 단일화 무산 기류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정근식, 단일화 필요성 거듭 강조
한만중 "현재로서는 완주할 의지"
홍제남 "교육 논리로 교육 이끌어야"
이학인 "교육격차 해소 가장 시급"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한만중 서울교육감 후보



홍제남 서울교육감 후보



이학인 서울교육감 후보

6·3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성향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둘러싼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진보 단일화 후보인 정근식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진보 진영 대통합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다른 후보들은 사실상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하며 선을 그었다.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이 마련한 진보 교육감 후보 기자회견이 열려 정근식·한만중·홍제남·이학인 후보가 각자의 교육 공약과 선거 구상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서 정근식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이후 일부 후보들이 절차와 방식에 문

제를 제기하며 독자 출마에 나섰다. 한만중 후보는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완주 의사를 밝혔고, 홍제남 후보는 단일화 추진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별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근식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진보 성향 후보들이 함께 출마하는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이날 후보들은 교육 공약을 앞세워 차별화에 나섰다. 정근식 후보는 "민·진·보 연합"을 표방하며 "교육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만중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홍제남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학인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근식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일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보수 인사들과도 서울교육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정책을 받아들이며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홍제남 후보와 후보 등록 전 만났고, 한만중 후보와도 토론회 등에서 접촉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민·진·보 교육 진영은 서울교육의 역사적 전통으로

단일후보를 만들어왔고, 선거 결과에 승복해온 전통이 있다"며 단일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사실상 독자 완주 입장을 내놨다.

한만중 후보는 "현재로서는 완주할 의지"라며 "선거는 서울교육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유권자에게 성실히 내놓는 과정"이라고 했다. 진보 진영 표 분산 우려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 진영 양측에서 8명 후보가 출마한 상황

에서 이른바 진보 분열 때문에 보수에 넘어간다는 것은 기우"라고 일축했다.

홍제남 후보 역시 단일화 논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 후보와의 접촉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후보가 된 뒤 대통합을 말하는 방식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제는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가 아닌 교육 논리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나가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인 후보 역시 단일화 논의보다는 독자 행보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별도의 단일화 입장을 전면에서 내세우기보다 "교육격차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도 진보진영 후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서울교육감 선거가 진보 표 분산 속 다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골목상권 75곳 공동마케팅 돕는다

올해 총 24억6800만원 투입
오는 29일 1차 공모... 50곳 선정

서울시가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처음으로 이동형 상권 안내 스탠드와 포토존, 배너 등 상권 인지도를 높이는 간이시설물 지원을 도입하고 공동마케팅 사업도 늘린다.

서울시는 올해 총 24억6800만원을 투입해 골목형상점가 75곳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산 12억9500만원보다 90.5% 늘어난 규모다.

우선 오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차 공모를 진행해 50곳을 먼저 선정한다. 선정된 상권에는 규모에 따라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공동마케팅 사업비가 지원된다.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 사업은 소규모·영세 골목상권을 제도권 지원 체계에 편입해 경쟁력을 높이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110곳을 신규 지정해 당초 목표(100곳)를 넘겼고, 별도 공모를 통해 60곳에 공동마케팅을 지원했다.

올해는 상권 가시성을 높이는 신규 지원도 추가했다. 이동형 안내 스탠드, 한시 운영형 포토존, 흡착형 깃발, 가로등 배너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골목형상점가를 더 쉽게 찾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골목형상점가 225곳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했다. 응답한 202곳 가운데 166곳(82%)이 상권 인지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대상은 공공 마감일 기준 서울시 내 지정이 완료된 골목형상점가다. 인접 상권과 연합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골목상권 사업에 참여한 상권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갖춰 상권 소재지 관할 서울 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오래된 고양시 도시공원 쾌적하게 바뀐다

주교2호어린이공원 등 환경개선

고양시가 시민들의 생활권 가까이에서 여가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심 속 녹지공간이자 산책과 휴식, 이웃 간 소통이 이뤄지는 생활 인프라로,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시는 노후 공원 정비로 통해 쾌적한 여가 환경을 제공하고,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덕양구 내 145개 공원 가운데 시설이 낡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휴식·운동 기능을 고루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성된 지 30여 년이 지난 주교2호어린이공원은 시설 노후화로 고양시는 경기도



주교2호어린이공원 전경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부터 전면적인 환경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7월 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시는 기존의 낡은 놀이시설을 최신 놀이대로 교체하고, 바닥에는 트램펄린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덕양구 성사동에 위치한 성리공원도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과 특별교부세 4억원 등 총 14억원을 확보해 노후 시설 개선에 나섰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하기 좋은기업 등 10곳 환경개선

중소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2000만원 규모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고용 안정성을 높일겠다는 취지다.

이번 '2026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인정한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휴게실과 구내식당, 화장

실, 사무·작업공간 등 복지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전반이다. 재단은 현장 중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 만족도와 고용 유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 기업은 서류 검토와 정량·정성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썬우이아이엠아이, 썬네스스비, 썬아이티비에이아이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시설 개보수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선정기업들은 앞으로 공사 계획 승인과 보조금 교부 절차를 거쳐 휴게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근로환경은 인재 유입과 장기근속,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우수한 일자리 환경을 갖춘 기업을 지속 발굴·인증하고 있다. 현재 인증이 유효한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은 총 139개사다.

하반기에는 신규인증기업 모집도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도내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5 | 해질 / 19:44

5월 27일 (수)
음력 : 4월 11일

수도권 날씨
21~25°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이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 연천 15/25
- 동두천 19/24
- 백령도 18/22
- 파주 19/24
- 가평 18/23
- 서울 21/25
- 양평 20/24
- 인천 21/26
- 수원 21/25
- 용인 21/25
- 평택 21/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한국 비하 발언으로 사퇴한 日 올림픽 간부... 선수들 "예견된 일" /사진 뉴스시스

▲ 3명 숨진 크루즈선 탑승자 한타바이러스 또 확진...스페인 승객 고도격리

▲ 美 F-35 약점까지 봤나...中, 통신·레이더 시로 전자전 판 흔든다

▲ 美 캘리포니아 연봉 1위 직업은 '치과 의사'... "연봉 5억 돌파"

▲ "美·이란 종전 MOU에 이스라엘 우려...극우, 전장으로 돌아가야"

▲ "아시아 시장 원유 재고 한계...유럽·미국도 1~2달 내 악화"